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업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윤현경*, 최미숙*, 이종화**
안동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The structural relationship that self-elasticity of student in dental hygienic influences study satisfaction and life adaptation of college

Hyun-Kyung Yun^{*}, Mi-Sook Choi^{*}, Jong-Hwa Lee^{**}

Dept. of Dental Hygiene, Andong Science College^{*}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고, 자아탄력성이 학업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아탄력성 향상과 학업만족,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의 2개 대학교 치위생과 1, 2, 3학년 학생 369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설문 조사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감정통제, 자신감으로 구분되었고, 학업만족은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으로 구분되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만족은 높았고, 자아탄력성과 학업만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은 높았다($p<0.001$). 이에 대학생활 적응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개선과 목표설정, 분노조절, 동기부여 등의 자아탄력성 조절능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학년과 학제에 맞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운영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주제어 : 대학생활 적응, 자아탄력성, 학업만족, 치위생과 학생

Abstract To find out self elasticity of student of dental hygienic, how self elasticity influences life adaptation of college and study satisfaction. To structure analysis the effects that is given from self-elasticity of student of dental hygienic influences life adaptation of college and study satisfaction, from 2013/10/1 to 2013/10/31 due to convenience sampling, 369 students in grade 1,2,3 in Daegu-Gyeongbuk were conducted a survey. The sub factors of self elasticity and study satisfaction and correlation of university life adjustment have the highest relevance to optimistic attitude and life adaptation of college. The higher self elasticity, the higher study satisfaction and the higher self elasticity and study satisfaction, the higher life adaptation of college. self elasticity increase the study satisfaction of students, improve adaptation($p<0.001$). Therefore to promote the life adaptation of college, the effort and attention to reinforce the abilities of regulation of self elasticity that are an improvement of personal relation, goal setting, anger control and motivation. On this wis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suitable continuous and gradational educational programs are needed.

Key Words : Dental hygiene students, Self elasticity, Life adaptation of college, Study satisfaction

Received 4 February 2014, Revised 14 March 2014

Accepted 20 May 2014

Corresponding Author: Jong-Hwa Lee(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Gimcheon University)

Email: hwa00700@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되고 적응하며 성장하는데,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나 그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하게 된다. 이는 초·중·고등학교까지의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능동적인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해 나가며 적응한다는 것은 의미한다. 그러한 대학생활 환경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성숙과 적응은 현재의 발달 뿐 아니라,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적응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약 90%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적응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1].

특히, 치위생과는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적 가치관 형성 및 전문가로서의 역할습득[2]과 21세기에 대비한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면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목적[3]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차원의 적응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학생들 간의 상호관계성을 참여도, 친밀도, 멘토지지를 통해 증진시키고, 체제 변화적 학습풍토 즉 학생들 간에 활동과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창출할 때 전문만족도가 증진될 것이다[4]

이러한 적응과 연관된 개념을 자아탄력성이라 하는데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말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적 차원 조절과 상황 및 환경적 수반을 변화시키는 적응차원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내·외적 스트레스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일반적 능력으로 스트레스나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은 앞으로 치과위생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연령의 치과 의료 대상자들을 접하게 되고, 치과 질환 및 장애에 대해 의학적 근거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계획하고 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교육함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조절능력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치위생과 교육은 강의식 교육 외에도 임상현장속의 실천적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객접점 매뉴얼과 role-play 등의 문제해결중심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과 표준화 모델(standard model)을 이용한 치아형태나 치면 세마 등의 임상 실습에 다양한 교육매체 및 교육방법을 채택하여, 치위생과 교육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유연한 대처능력 함양에 대처하고 있으며, 학업만족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과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적 가치관 유도에도 노력하고 있다[6]. 이에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업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알맞은 지도와 상담 및 선배들의 멘토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7], 전인적인 치위생 교육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과 선택 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한 자아탄력성 개념은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간호학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인문사회대학생보다 낮고, 낙관적 태도, 자신감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에 따른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학업만족을 높이고, 대학생활 적응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의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고, 자아탄력성이 학업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학업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업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치위생과 학생의 학업만족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2개 대학교 치위생과에 1, 2, 3학년 학생 중 편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선정된 4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동의를 구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0명에게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400명의 본 조사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31부를 제외한 369부를 최종 실증적 분석을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2.2 측정변수

자아탄력성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9]을 변안한 [10]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낮선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것이 어렵다’, ‘나는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꺼려한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혹스럽다’, ‘나는 수업 중에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 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할 지 잘 생각이 안 난다’, ‘종종 내 삶은 무의미한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확실히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가끔 든다’, ‘내가 보기에 미래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세상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자주 든다’, ‘나는 종종 쓸데없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짜증이 난다’, ‘나는 종종 별척 화를 낸다’, ‘나는 일단 화가 나면 성질이 고약해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일이 잘 안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등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정문은 역환산 처리하여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업만족은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11]를 수정·보완한[12]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전공학과의 교육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전공학과는 내가 다닐만한 학과이다’,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전공에 대해서 만족한다’, ‘전공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전공 도서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전공 영역에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교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전공 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원한다면 언제나 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전공 시험은 적절한 양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내 전공학과는 인기학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전공학과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전공학과를 졸업했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부모님은 나의 전공학과를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다’, ‘전공학과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전공이 도움이 된다’ 등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정문은 역환산 처리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 적응 설문지 (Student Adjustment to Collage Questionnaire : SACQ)[13]을 수정 보완한[14]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나는 현재의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대학에 들어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나는 최근 들어 자주 우울해진다’, ‘나는 최근 들어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나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우리학과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학과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다’, ‘나는 최근 들어 신경이 곤두서 있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충분히 잘 해낼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나는 현재의 주거형태에서 잘 생활해 나가고 있다’, ‘나는 최근에 머리가 자주 아프다’, ‘나는 최근에 학습의욕이 없고 공부를 하려해도 집중이 잘 안 된다’, ‘나는 과외,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최근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 ‘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변화되었다’,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나는 최근에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다’, ‘나는 요즘 건강상태가 좋은 것 같다’,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의 학과 공부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나는 대학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나는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나는 대학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나는 현재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많다’ 등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정문은 역환산 처리하여 총 25문항을 사용하였다.

2.3 자료 분석

SPSS의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자아탄력성과 학업만족의 요인분석과 자아탄력성과 학업만족, 대학생활 적응 등에 대한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고, 관련 요인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2 , GFI, CFI, TLI, NFI, RMR, RMSEA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별로는 1학년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39.66%, 2학년 22% 순이었다.

었다. 교우관계는 좋음이 54.2%로 가장 많았고, 보통은 43.4%, 나쁨은 2.4%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Item	N	%
Grade (year student)	First	142	38.5
	Second	81	22.0
	Third	146	39.6
Relation of friends	Dissatisfaction	9	2.40
	Normal	160	43.4
	Satisfaction	200	54.2
Total		369	100.0

3.2 자아탄력성 요인분석

자아탄력성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문항 선택기준인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감정통제, 자신감 등의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4개 구성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59.683%였다<Table 2>.

3.3 학업만족도 요인분석

학업만족 측정 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당도 검정을 위한 문항 선택기준인 고유값

<Table 2> Factor analysis of self elasticity

Question	Factor analysis			
	Ir	Oa	Ec	Sc
It is difficult to talk to strangers	.815			
I don't like to talk very much someone who is not close to me	.760			
I become confused with unfamiliar people	.746			
It is hard to speak in front of class	.679			
I am not sure if I can lead other people	.586			
I don't know what to say when I am with many people	.536			
Sometimes I feel like my life is meaningless		.774		
I am not happy as other people think		.696		
Sometimes I am sure that I am useless		.680		
I think my future is hopeless		.634		
I feel like world slides by		.598		
I get irritated at stray		.526		
I suddenly get angry often			.837	
I recognize that I become malicious when I'm angry			.802	
I easily give up when I face hardship				.854
I want to give up if I think something will work badly				.844
Eigen-value	5.215	1.988	1.284	1.062
R ² (%)	32.596	12.425	8.024	6.638
Total R ² (%)	59.683			

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efficacy, Oa: Optimistic attitude, Ec: Emotion control, Sc: Self-confidence

〈Table 3〉 Factor analysis of study satisfaction

Question	Factor analysis		
	Ss	Rs	Cs
I am interested in my major subject	.858		
I'd like to attend my major school	.847		
The subjects in department of major suits me	.830		
I satisfy my major subject	.794		
I feel like I am learning something valuable in my department of major	.628		
It is worth learn major in text book	.452		
In my department of major I can learn how to study and get advice from professor		.846	
Conversa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is smooth		.759	
There are many chances to study deeper are given		.696	
I can meet professors anytime I want to		.687	
The purposes of professors who teach students are clear and explain simply		.687	
The amount of exams of my major is enough and it helps to study		.585	
My departments of major are popular			.814
Many people want to join my department of major			.795
Graduating my department of major gives advantage in society			.757
My parents will be proud of department of major			.719
I talk about my department of major to people honorably			.651
My present major will help career after graduation			.528
Eigen-value	6.826	2.219	1.848
R ² (%)	37.920	12.325	10.265
Total R ² (%)		60.511	

Ss: Subject satisfaction, Rs: Relationship satisfaction, Cs: Cognition satisfaction

(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등의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3개 구성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60.511%였다〈Table 3〉.

3.4 변수간의 상관분석

자아탄력성의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감정통제, 자신감 등과 학업만족의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된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및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인관계 효율성은 낙관적 태도 0.437(p<0.01), 감

정통제 0.155(p<0.01), 자신감 0.395(p<0.01), 교과만족 0.198(p<0.01), 관계만족 0.212(p<0.01), 인식만족 0.175(p<0.01), 대학생활 적응 0.289(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낙관적 태도는 감정통제 0.384(p<0.01), 자신감 0.479(p<0.01), 교과만족 0.257(p<0.01), 관계만족 0.166(p<0.01), 인식만족 0.229(p<0.01), 대학생활 적응 0.629(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감정통제는 자신감 0.223(p<0.01), 인식만족 0.117(p<0.05), 대학생활 적응 0.415(p<0.01)로 유의하였으며, 자신감은 교과만족 0.297(p<0.01), 관계만족 0.116(p<0.05), 인식만족 0.249(p<0.01), 대학생활 적응 0.425(p<0.01)로 유의하였

〈Table 4〉 Inter-construct correlations of variable

	Ir	Oa	Ec	Sc	Ss	Rs	Cs	Lac
Ir	1							
Oa	.437**	1						
Ec	.155*	.384**	1					
Sc	.395**	.479**	.223**	1				
Ss	.198**	.257**	.093	.297**	1			
Rs	.212**	.166**	.016	.116*	.427**	1		
Cs	.175**	.229**	.117*	.249**	.525**	.370**	1	
Lac	.289**	.629**	.415**	.425**	.425**	.208**	.378**	1

* : p<0.05, ** : p<0.01

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efficacy, Oa: Optimistic attitude, Ec: Emotion control, Sc: Self-confidence, Ss: Subject satisfaction, Rs: Relationship satisfaction, Cs: Cognition satisfaction, Lac: Life adaptation of college

〈Table 5〉 Reliability coefficients of scale

	Factor	Item	Cronbach- α
Self elastic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efficacy	6	0.815
	Optimistic attitude	6	0.795
	Emotion control	2	0.694
	Self-confidence	2	0.796
	Total	16	0.858
Study satisfaction	Subject satisfaction	6	0.889
	Relationship satisfaction	6	0.843
	Cognition satisfaction	6	0.838
	Total	18	0.691
Life adaptation of college		25	0.838

다. 교과만족은 관계만족 0.427($p<0.05$), 인식만족 0.525($p<0.01$), 대학생활 적응 0.425($p<0.01$)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만족은 인식만족 0.370($p<0.01$), 대학생활 적응 0.208($p<0.01$)로 유의하였고, 인식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은 0.378($p<0.01$)의 상관계수 값으로 나타났다.

3.5 변수간의 신뢰도분석

자아탄력성 하위 4개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대인관계 효율성 0.815, 낙관적 태도 0.795, 감정통제 0.694, 자신감 0.796 이었고, 모두 기준치 0.6을 상회하는 것으로 신뢰도에 이상이 없었다. 학업만족 3개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교과만족 0.889, 관계만족 0.843, 인식만족 0.838 이었으며, 대학생활 적응은 0.838로 모두 기준치 0.6을 상회하는 것으로 신뢰도에 이상이 없었다〈Table 5〉.

3.6 자아탄력성, 학업만족과 대학생활적응의 경로분석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모델을 기초로 적합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55,291$ ($p<0.001$), GFI=0.962,

CFI=0.951, TLI=0.924, NFI=0.930, RMR=0.024, RMSEA=0.075로 나타나, 모두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경로분석 모형은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다〈Fig. 1〉.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학업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구조적 분석의 가설 1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Table 6〉, 두 변수간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0.424(CR=5.670,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업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어, 자아탄력성은 학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실증분석결과, 학업만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간 표준화 경로계수가 0.258(CR=4.700,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2도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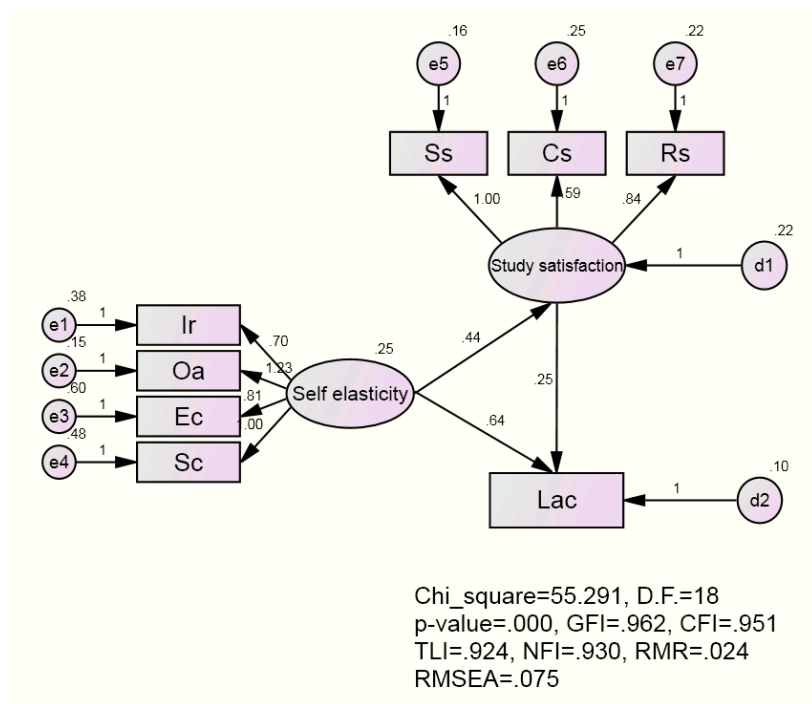
가설 3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0.630(CR=8.953, $p<0.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3도 채택되어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업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elf-elasticity, study satisfaction and life adaptation of college path analysis

path analysis		Estimate		S.E.	C.R.	Hypothesis (Research hypothesis)
		B	β			
Study satisfaction	← Self elasticity	0.440	0.424	0.078	5.670***	1(Accept)
Life adaptation of college	← Study satisfaction	0.252	0.258	0.054	4.700***	2(Accept)
Life adaptation of college	← Self elasticity	0.640	0.630	0.071	8.953***	3(Accept)

*** : $p<0.001$



(Fig. 1) self-elasticity, study satisfaction and life adaptation of college Path analysis

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efficacy, Oa: Optimistic attitude, Ec: Emotion control, Sc: Self-confidence, Ss: Subject satisfaction, Rs: Relationship satisfaction, Cs: Cognition satisfaction, Lac: Life adaptation of college

4. 고찰

대학생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다분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대학에 입학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 적응해야하는 현실에 도래하고 있다[15]. 또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진로의 결정 등 여러 가지 발달과업이 주어지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과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업으로 인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6].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의 적응능력 증진이나 환경적 지지 보다는 그들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 접근 전략이 될 수 있음이 제시된 바[17], 치위생과 교육현장은 교육과정 전반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탄력성을 도울 수 있는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며, 다양한 수준의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결과,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인 낙관적 태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낙관적 태도가 가장 영향력이 있어,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멘토, 멘티 제도, 동아리 활동, 학회활동 참여 등을 격려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한 연구결과[18]와 학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자신감 결여와 통제력 결여가 학과 만족도를 저하시키므로 학교 및 학과 차원의 방안과 동기유발이 필요하다는 결과[4]을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자아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선행연구[17] 결과,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장점과 취약점을 지각하게 하고, 문제 및 위기상황에 대한 건강한 대처를 통해 자기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편의 표본추출에 의한 횡단

적 접근법이라는 것과 대구·경북에 소재한 2개 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수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학업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탄력성 향상과 제고의 필요성을 파악한 점과 교육적 측면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살펴야 하는 자아탄력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학업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보이는지 실증적 분석을 하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별 상관관계는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인 낙관적 태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련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학업만족 하위요인인 인식만족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인 감정통제와 학업만족 하위요인인 교과만족,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인 감정통제와 학업만족 하위요인인 인식만족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다른 제 변수들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만족,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으며, 학업만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활 적응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개선과 목표설정, 분노조절, 동기부여 등의 자아탄력성 조절능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학년과 학제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운영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Su-Jin Lee, The effect of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nd autonomy on college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esting a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6, No. 2, pp. 229-248, 2009.

[2] Yong-Ju Kang, A study o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Academy Dental Hygiene Education*, Vol. 9, No. 1, pp. 73-84, 2009.

[3] Sun-Mi Lee, Seong-Chon Kim, Su-Jin Han, A Study of Work Values on the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5, No. 4, pp. 239-244, 2005.

[4] Ji-Su Yu, Su-Young Choi, The effects of emotional perception on major Satisfaction among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10, No. 5, pp. 307-314, 2010.

[5] Block J. H. and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Collins WA, Editor.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Hillsdale, NJ: Erlbaum, Vol. 13, pp. 39 - 101, 1980.

[6]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3.13.05.777>

[7] Jin-Ah Jung, Yun-Jung Jang, A study on attitude and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Vol. 11, No. 5, pp. 649-657, 2011.

[8] So-Young Min, Adjustment experience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 Mental Health Nursing*, Vol. 15, No. 4, pp. 409-419, 2006.

[9] DOI: 10.1037/0022-3514.70.5.1067

[10] Hyun-Jin Park, Perceived stress, manage and depression belonged to self elasticity.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1997.

[11] DOI: 10.1037/0022-0663.71.4.494

[12] Kay-Hyon Kim, Hye-Suk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2000.

- [13] DOI: 10.1037//0022-0167.31.2.179
- [14] Jin-Won Hyun, Jung-Hoon Choi,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orkshop Presentation File, pp. 463-472, 1992.
- [15] Eun-Jung Oh, Min-Sun Kim, Jeong-Hee Kim, Analysis of result of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for freshman in 2012 academic year.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26, pp. 61-81, 2013.
- [16] Mae-Hyang Hwang, Hye-Young Park, Career Development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ol. 8, No. 2, pp. 157-176, 2005.
- [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 [18] Jin-Ah Park, Eun-Kyung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이 종 화(Lee, Jong-Hwa)



- 2012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보건학박사수료)
- 2012년 9월 ~ 현 재 :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기공학, 보건학, 치과 의료관리
- E-Mail : hwa00700@hanmail.net

윤 현 경(Yun, Hyun-Kyung)



- 2014년 2월 : 영남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2년 9월 ~ 현 재 : 안동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보건학
- E-Mail : yhk8321@hanmail.net

최 미 숙(Choi, Mi-Sook)



- 2013년 2월 : 영남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05년 9월 ~ 현 재 : 안동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보건학
- E-Mail : cms9859@hanmail.net